

붓다의 딸들 '사카디따' 공존을 논하다

6월 23~30일 14차 세계불교여성대회 인도네시아서 성료

불교 '여성주의'가 지난 특유의 지혜를 바탕으로 인식의 지평을 모색하는 국제 행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6월 23~30일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는 자비와 사회정의(Compassion and Social Justice)를 주제로 제14회 세계불교여성대회 '사카디따' (회장 뎬진빠모)가 개최됐다. '사카디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딸이라는 의미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3억 명에 달하는 여성 불자의 시각으로 정의·평화로운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 열렸다. 총 40개국으로부터 모인 1천여 명의 불교도와 비불교도들은 승가와 재가 불자들의 경계를 허물고, '주체적 여성'이라는 공공의 대의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연대 방법을 모색했다.

행사는 논문 발제 및 인도네시아 문화 체험을 비롯해 불교 관련 워크숍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인도네시아 역사 속 불교와 여성관 관련 다양한 문제들을 토의하며 세계 불교도와 연대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과거 사회적 합의 구조에서 배제돼 왔던 기존의 여성상을 되짚어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적극적인 여성상 수립"에 모두 동의했다.

또한 세계적인 명사가 아잔브람은 '현재에 충실한 삶' 주제로 법문을 열었다. 아잔브람은 태국에서 출가한 남방불교 수행자로서 캠브리지 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했다. 아잔브람은 "이 시대의 승려자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물으며 "신념을 지니고 시대

정의 구현을 위해 앞장서는 창조적인 여성, 변화와 유연성을 주도하는 주체적 여성이 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아잔브람은 사카디따에 대해 "각기 다른 맛의 조각 케이크들이 모여 하나의 훌륭한 케이크로 완성된 것"이라고 비유하며 "연민과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사카디따라고 하는 한 톨의 씨앗에서 피워낼 수 있는 천 송이의 꽃과 같다"고 사카디따의 연대를 격려했다.

이밖에도 불교의 세계적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감춰진 분야의 고초를 토로한 논제도 있었다. 사카디따 회장 뎬진빠모는 '외국인 출가 수행자가 겪는 수행의 어려움과 승단의 과제'를 발제해 주목을 받았다. 자신들이 속한 사회를 떠나 미지의 지역에서 출가한 승려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고민을 다룬 것이다.

뎬진빠모는 소외된 비(非) 히말라야 지역 출신 여성 출가자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전 세계 스님들을 위한 거처 마련, 교육 증대 편성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뎬진빠모는 "비(非) 히말라야 출신 외국인 여성 수행자들이 티베트불교 스승으로부터 인정과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뎬진빠모는 잉글랜드 출신 티베트불교 수행자로서 티베트불교 까규빠 종풍을 따르는 인도 북부 돈구가찰링의 사원장이다. 저서로는 <여성의 몸으로 붓다가 되리라>를 펴냈으며, 티베트불교의 비구니계 수계 제도 확립 관련 오랜 시간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14차 세계불교여성대회가 6월 23~30일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열렸다. 회장 뎬진빠모(사진)는 "여성 불자 특유의 자비와 관용으로 시대적 현안들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승가와 재가 불자 경계 허물어
주체적·적극적 여성상 강조
전 세계 비구니 네트워크 구축 제안
한국 여성 불자 50여명 참가

한편 한국도 승려와 재가자로 구성된 총 50여 명의 여성 불자들이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 참가단은 발제 논문으로 △현대 한국 불교 승가의 역할 재편성과 자비 실천의 개인사례(효석 스님) △불교의 보편성에 기반한 사카디따 승단(조성자) △지을 스님의 환경보호를 둘러싼 법정 여정(리나 폴레이라트) △승속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운 선사 전설에 나타난 비구니 전정 영웅(이향순) △조선 전기 승가와 여성 불자의 소통

(소운 스님) △한국의 자기 관리 열풍과 페미니즘의 불변한 관계(강석주) △초기 중국불교에서 비구니 교육(정완 스님)이 발표했다.

앞서 한국은 2013년 미국·캐나다·독일에 이어 사카디따 한국지부(공동대표 조은수)를 창립한 바 있다.

사카디따는 전 세계 여성 불자들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14대 달라이라마(뎬진가초, 80) 제안으로 1987년 인도 보드야에서 출범했다. 수행하는 삶을 지향하는 여성 출가자와 재가불자들의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여성 평등과 인류 행복을 위한 연대로 2015년 사카디따 결의안을 내놓았다. 차기 세계불교여성대회는 2017년 홍콩서 개최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기연숙 객원기자

달마라지카 사원, 가난한 이슬람교도에 '자비행'

라마단 기간 중 불우한 이슬람교도에 이프타르 무료 제공
"남아시아 종교계 주목해야 할 종교 화합 실례"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 있는 달마라지카(Dharmarajika) 사원이 이슬람교도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해 국내외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방글라데시의 한 불교사원이 수백여 명의 이슬람교도에게 라마단 기간 동안 음식을 제공해 화제다.

'Tribune'은 7월 7일 "남아시아 국가에서 불교와 타 종교 간의 사회적 소통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반면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달마라지카(Dharmarajika) 사원이 가난한 무슬림에게 이프타르(Iftar)를 제공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라마단은 아랍어로 '더운 달'이라는 뜻으로 <코란>에서 신성한 달로 주목한 이슬람력 9번째 달을 말한다. 이슬람교도들은 라마단 기간 중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에는

음식과 물을 먹지 않으며 해가 지면 급식을 중단하고 일몰 첫 만찬인 '이프타르'를 먹는다.

달마라지카 사원의 수다난다 마하세로(Suddhananda Mahathero) 스님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부처님께서 강조하셨던 최고의 덕목이 바로 자비행"이라며 "단식 후 몸 회복을 위해 적절한 음식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슬람교도에게 음식을 제공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Tribune'에 따르면 7월 5일 저녁에는 3백여 명 이상의 이슬람교도들이 수도 다카의 바사보 지역에 있는 달마라지카 사원 일주문 앞에 모여 이프타르 시간을 기다렸다.

당시 이슬람교도들의 손에는 짧은 스님들이 나눠준 배식 번호표가 있었고 지역 경찰들은 배식 질서 유지에 힘썼다.

자신의 배식 순서를 기다리던 아이메나 카툰(Amena Khatun·70) 씨는 "스님들의 자애로운 봉사료 맛좋은 아프타르를 먹을 수 있게 됐다"며 "달마라지카 사원에 오기 위해 수 킬로미터를 걸어서 왔다"고 말했다.

아사드 우짜만(Asad Uzzaman) 경관은 "종교적 편견을 버리고 급식하는 이웃 종교인에게 맛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종교 간 분쟁이 빈번한 남아시아 종교계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종교 화합의 실례"라며 "달마라지카 사원의 대중 스님들의 용기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Tribune'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수도 다카에서는 수천여 명의 이슬람교도들이 <코란>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십여 개 사원을 방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방글라데시의 1억 6천만 인구 중에서 이슬람교도는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949년 설립된 달마라지카 사원은 이번 무료 급식 외에도 7백여 명의 고아를 돌보고 있다.

오중욱 편집위원

돈 구걸하는 '가짜 스님' 판친다

스님 행색으로 세계 주요도시서 행인 돈 '갈취'

뉴욕 한 북판 타임스퀘어에는 미키마우스, 슈퍼히어로, 엘비스 프레슬리 등 다양한 코스튬(특정 의상)으로 분장한 사람들이 즐비해있다. 지난해에는 스님 분장을 한 채 행인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발견돼 입방아에 올랐다.

'Lion's Roar'은 6월 30일 세계 각국에서 판치는 '가짜 스님'에 대해 보도했다. 세계 주요 도시서 스님 행색으로 돈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불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Lion's Roar'은 "머리를 밀고 승복을 입은 남자들이 행인들에게 돈을 구걸하며 못살게 주는 한편, 때때로 길을 가로막고 신경질을 부리기도 한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뉴욕 타임스퀘어에서는 가짜 스님이 골칫거리로 떠올라 '새로운 스퀴즈 맨(squeezee men, 신희 대기 중인 차 앞 유리를 닦아 주고 돈을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사람을 지칭)' 또는 '판나니(holy terrors)'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다.

'Lion's Roar'는 "홍콩 가짜 스님, 뉴욕 가짜 스님 등을 고발하는 SNS 페이지가 생길 정도로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The New Zealand Herald'는 지난 1월 "가짜 비구니로 훈련 받은 여자 증언으로는 배후에 가짜 스님을 만드는 중국인 연합체가 있다"고 고발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가짜 비구니 복장과 교육을 받기 위해 한 사람이 그 연합체에 지불해야 하는 돈은 약 1,613달러(한화 약 1백 83만원)이다. 뿐만 아니라 가짜 비구니 행세로 모은 돈의 일부는 연합체에 쥐어진다.

이에 대해 'Lion's Roar'은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치명적 문제"라며 "불교는 전통적으로 음식을 보시 받는 탁발 문화는 있으나 돈을 구걸하지는 않는다. 길거리에서 돈을 요구하는 스님은 절대 진짜 스님이 아니다"고 충고를 덧붙였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세계 주요도시서 행인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가짜 스님'이 점점 증가해 우려를 낳고 있다. 사진 출처=New York Post

플루스트 '나왕 케축' 자선 연주회

7월 12일 첫 티베트 불교센터 건립 기념

그레미상 후보로 지명된 티베트 플루스트 나왕 케축(Nawang Khechog)이 코네티컷 소도시 레딩(Reading)에 불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Redding Pilot'는 7월 5일 "나왕 케축이 7월 12일 뉴욕의 한 유니테리언 교회(Unitarian Church)에서 티베트 불교사원 '도 니각 쿤펜 링(Do Ngak Kumphen Ling, 이하 DNKL)' 건립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주회를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레딩 지역 사회에서 종교를 떠나 모든 사람에게 불교의 교리철학·명상 등을 주제로 한 무료 강좌를 적극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DNKL 건립 추진 위원과 도서출판 카루나(Karuna)의 후원으로 이번 연주회가 진행될 수 있었다.

이번 연주회에는 나왕 케축을 비롯해 미국의 인기 드라마 '예쁜 거짓말쟁이', '뱀파이어 다이어리' 등의 OST를 맡았던 싱어송 라이터 케이트 코스텔로, 코네티컷주립대학 오케스트라 이사 및 맨해튼 현악 사중주의 리더 바이올리니스트인 에릭 루이스, 시타르 연주자 노 디너스테인 등이 무대에 올랐다.

'Redding Pilot'는 "이번 연주회의 수익금 일부는 네팔 지진 피해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라며 "이번 연주회에 앞서 나왕 케축은 콜로라도 비전어리 어워즈(Visionary Awards)에서 올해 최고 음악상(Best Music of the Year Award)을 수상했다"고 덧붙였다.

오중욱 편집위원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중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